

## ◎ **참조? 휘귀(火鍋)로 몸보신 하세요**

서울의 휘귀(火鍋) 전문점



▶ **마오(MAO) | 휘귀(火鍋) · 북경오리(베이징카오야 · 北京烤鴨) 전문점.** 백탕은 매장에서 끓이고 홍탕은 본사에서 받아쓴다. 양고기(2만원) · 쇠고기(2만3,000원) · 돼지고기(1만5,000원) · 해물(3만6,000 · 4만8,000원)이 있다. 1인분을 주문하면 고기와 함께 청경채 · 새송이버섯 · 숙갓 · 팽이버섯 · 당면 · 배추 · 얼린 두부가 별도 접시에 잔뜩 담겨 나온다. 홍탕은 살짝 얼얼할 정도로만 산초를 자제해 한국인 입맛에 맞췄다. 팡콩소스와 홍방을 섞은 소스가 나온다. 다진 마늘과 파를 취향대로 섞어 먹는다. 중국음식 재료와 요리법, 양념을 메뉴 앞쪽에 친절하게 설명했다. 본사에서 초벌구이한 북경오리(1마리 4만5,000원, 반마리 2만8,000원)를 워크(Wok · 중국식 프라이팬)에 넣고 기름에 튀겨 손님에게 낸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2동 651-6☎(02)2658-3377)

▶ 조선일보 김성윤 기자, dkny@nongmin.com

[최종편집 : 2008년 12월 12일]

## ◎ **[스타 보양식의 비밀] 솔비의 상큼한 오리냉채, 오리불고기, 오리육개장**



MBC의 떠오르는 쾌남 아니운서 허일후가 '상큼 발랄' 통통 튀는 매력의 솔비와 만났다! 솔비와 허일후의 식신본능, 어떤 음식으로 우리의 눈과 입을 자극할까? 지금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 ◆ 상큼한 오리냉채



솔비가 좋아한다는 음식은 예로부터 고기 중 으뜸으로 쳤던 오리고기다. 휴그린한의원 윤동호 원장은

"다른 육류와는 달리 오리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산성 체질을 변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 형성을 억제,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몸의 해독은 물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설명한다. 먼저 솔비가 추천한 첫 번째 음식은 상큼한 오리냉채! 오리를 참나무에서 기름기 쏙 빠지게 훈제한 후 해파리, 게맛살, 오이, 당근을 마늘 · 식초로 조물조물 무치고 메밀싹과 함께 담아내면 오리냉채 완성이다. 훈제오리를 채소와 해파리냉채에 함께 싸먹으면 비린 맛도 없어지면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끌리는 별미가 된다.

### ◆ 오리 사랑~ 오리불고기



솔비가 좋아하는 두 번째 음식은 역시 빠질 수 없는 오리고기사랑, 오리불고기다. 오리고기를 과일소

스에 재 부드럽게 만든다. 이를 고소한 콩가루, 과일, 육수, 간장을 넣어 무친 후 불에 올려 보글보글 끓여내면 먹음직스러운 오리불고기 완성. 오리불고기를 듬뿍 담아 껏잎에 싸먹으면 술을 먹지 않았어도 속이 시

원하게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 부드러운 맛이 일품! 오리육개장



식신 솔비와 무엇이든 잘 먹는 허일후 아나운서의 마지막 음식은 오리육개장! 오리를 한약재와 함께

푹 삶은 후 채소와 무, 고추, 마늘 등 각종 양념을 넣고 끓이면 후끈한 보양식 오리육개장이 완성된다. 다른 육개장처럼 칼칼한 맛보다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도움말: 휴그린한의원 윤동호 원장)

▶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기자, chyjo@kmib.co.kr

【최종편집: 2008년 12월 2일】

### ◎ 모란식품 음성육가공 제2공장 준공 본격 기동 '오리업계 선도기업' 자리매김 비전 제시



◆ 중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서평택 음성간 고속도로로 인해 음성지역이 국내 축산물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리전문기업인 모란식품(대표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육가공공장이 지난 1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모란식품 육가공공장은 18개월에 걸쳐 도축설비 개선공사, HACCP을 적용한 8,500㎡ 규모의 2차, 3차 가공장을 건설했다. 이와 함께 부화장 1,500㎡, 작업장

1,400㎡, 냉동 300톤, 냉장 100톤 규모의 창고와 폐수처리시설을 등에 추가로 투자하는 등 모란식품은 149억원을 투자, 연건평 1만3,000㎡ 개별동수 10개 동을 모두 준공했다.

모란식품 김만섭 사장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지금 오리업계는 물론 전 축산업이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란식품은 국내 오리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일념으로 2년여 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오늘 가공장준공을 모란식품 제2의 도약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고 내실있는 기업,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오리업계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충북도 이승훈 정무부지사, 농식품부 이상길 축산 정책단장, 김동환 농단협회장과 축산관련 단체장 등 많은 내빈이 찾아 모란식품의 신공장 건설을 축하했다.

▶ 축산경제신문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최종편집: 2008년 12월 5일】

### ◎ 몸값 비싼 '유황오리' 키워 부농 꿈 예천읍 김원혁씨, A파동 달고 도전장



◆ 농고 졸업 뒤 졸공 농사를 지어온 김원혁(44·예천군 예천읍 대신리)씨는 올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 Duck's News

\* January · 2009

# 20

한 마리 가격이 15만~20만원에 이르고, 알 1개에 3000원 하는 홍삼·유황오리 사육에 나선 것이다. 김씨의 오리사육 경험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논 26만㎡(8000평)에 벼농사를 짓고 소 60마리를 키웠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분야를 찾아야 했다. 그는 소 대신 오리를 택했다.

그러나 오리사육은 만만치 않았다. 2004년과 올해 전국적으로 덮친 조류인플루엔자(AI)로 큰 타격을 봤기 때문이다. 예전은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여파로 오리가 팔리지 않았다. 결국 두 차례의 AI 파동으로 5억원을 손해 보는 등 그동안 번 돈을 몽땅 까먹었다. 좌절할 수 없었던 그는 12만 마리로 불어난 오리를 처분하고 지난 3월 유황오리(4000마리) 사육에 나섰다. 청정환경에서 사육돼 AI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고 웰빙 바람으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판단해서였다. 그동안 집에서 먹기 위해 수십 마리씩 유황오리를 길러 본 경험이 있어 사육에 어느 정도 자신이 붙은 상태였다.

문제는 육용오리의 두 배 이상 드는 생산비와 아홉 배 정도 긴 사육기간. 하지만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김씨는 논 4600여㎡(1400여 평)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때마침 예천이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올라 한시름 덜었다. 일반 육용오리는 40여 일 키워 출하(도축전 3.5kg 정도에 5500원) 하지만 유황오리는 50~60일 뒤부터 6개월 이상 유황

○ 홍삼 유황오리는 ○  
 유황 섭취량 : 마리당 하루 5~6g  
 사료 : 홍삼 부산물, 인삼, 껌묵, 맥반석 등과 생균제(유산균, 효모균)를 배합한 특수사료  
 사육기간 : 1년 정도(일반 육용오리는 40여 일)  
 가격 : 15만~20만원(육용오리는 5,500원 정도)  
 용도 : 약용 및 보신용

을 먹이는 등 1년 정도 사육해야 한다. 그는 마리당 하루 5~6g씩 유황을 주고 홍삼찌꺼기·인삼·껌묵 등과 생균제(유산균·효모균 등)를 배합한 특수사료를 먹인다.

조사결과 1년간 마리당 사료 값(유황 등 포함)만 7만원 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황의 독성 때문에 죽는 오리(폐사율 15%)도 많았다.

그는 “오리 폐사율이 높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 전국적으로 유황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10 농가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의 오리알은 요즘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하루 200개씩 생산되는 오리알(개당 3000원)은 전량 판매된다. 소문을 들은 대구·안동 등 도시 한의원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서다. 김씨는 전국 판매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 중이다.

그는 내년 1월 하순, 이 유황오리를 진액으로 만들거나 생오리로 출하할 예정이다. 생오리 가격은 전라도의 전문 농가가 받는 마리당 15만원을 웃돌 것으로 자신한다.

그는 “유황 오리가 약용 및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유황은 중금속·농약 등의 해독작용이 있고 약성이 강해 항암·염증치료·통증 완화·우울증 치료제 등으로 사용된다.

▶ 중앙일보 황선운 기자, suyohwa@joongang.co.kr

[최종편집 : 2008년 12월 5일]

## ◎ 가금수급위 내년 예산 13억원

사업계획 확정...종계DB사업에 1억8천만원

‘수도권계란공판센터’로 유통선진화 추진

● 농협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3일 2008년도 제 2차 수급위를 개최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총 13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종계DB 구축사업에 1억8천만원, 종오리 DB사업에 1억1천만원, 계란공판센터 설치 검토연구에 5천만원, 가금발전전략 심포지엄 8천만원, 구구데이 행사 등 가금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8억5천4백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특히 가금수급위는 산란계 업계에 계란유통 선진화 및 공정가격 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한 '수도권계란공판 센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금수급위는 종오리 DB사업 조기 도입을 통해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하고 오리의 이동경로를 매월 파악함으로써 질병관리 기반을 확립키로 했다.

수급위는 구구데이·오리데이에 각각 2억원을 투입하고 또 TV 간접광고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금산물의 영양적 우수성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가금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 상황 발생과 필요 소비홍보 사업 등을 적기에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 축산신문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8년 12월 6일]

## ◎ 해협 도축장, 구조조정·검사관 증원 필요

### 소비자단체들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소·돼지 도축장 (주)영남일피씨와 닭·오리 도축장 (주)마니커동두천이 가장 위생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실경영도축장은 구조조정하는 한편 도축장 검사관을 증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지난 28일 9개 소비자단체 실무자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한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단의 결과,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도축장 중 휴업·폐업·영업정지 상태의 작업장을 제외한 소·돼지 도축장 84개소와 닭·오리 도축장 45개소를 평가해 상위 소·돼지 도축장 25곳, 닭·오리 도축장 13곳을 선정했다. 상위등급 소·돼지 도축장은 김해축산물공판장,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주)농협목우촌, 대상팜스(주), 도드람LPC공사 등 총 25곳이 선

정됐다. 상위등급 닭·오리 도축장은 13곳으로 (주)농협목우촌, (주)동우, (주)디엠푸드, (주)마니커동두천, (주)체리부로 등이 뽑혔다.

소비자연맹은 지난해의 지적사항을 개선한 업체는 소·돼지 도축장 90%(71개소), 닭도축장 84%(30개소)로 작년의 72%, 69%보다 많이 증가해 도축업계의 개선노력 의지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프라에서 도축검사라인의 길이와 공간, 실험실 미생물 검사, 시설위생에서는 생체검사장의 운영, 칼, 톱날 관리, 도체간격유지, HACCP관리에서는 위해분석과 관리조치 기록, 허용한계치 이탈시의 개선조치와 기록 등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기준의 도축장 가동율은 소 41.5%, 돼지 55.5%, 닭 78%, 오리 62%에 불과하다며, 1일 평균 도축물량은 소 33마리, 돼지 862마리고, 1일 도축물량이 소 5마리 미만인 업체가 6개소, 돼지 100마리 미만인 업체가 11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부실경영을 면할 수 있는 도축물량을 확보한 도축장은 29.8%(25개소)에 불과하다며, 적정물량의 확보로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도축장들의 구조조정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도축장의 검사관 증원과 국가검사관제 도입이 시급하며, 도축업체중사자들이 HACCP관련 업무에 대해 숙지하도록 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축장 HACCP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축장 평가 결과는 실무평가단이 도축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한 기준서 평가점수 인프라 30점, 시설위생 30점, HACCP관리 40점으로 총 100점에서 소·도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대장균 등 도축장 미생물검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해 110점을 총점으로 했다.

▶ 전업신문 기자 [최종편집 : 2008년 12월 8일]

## ◎ 전남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잇따라 발생 방역조치 강화

• 전남지역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2월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철새 도래지인 함평군 대동저수지에 대한 예찰 결과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AI(H5N2)가 확인됐다. 전남도는 대동저수지 반경 10km 이내 2개 농장의 닭, 오리, 거위 등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장성군 동화면, 함평군 월야면과 나산면의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11월 5일 함평과 나주의 시장. 같은 달 12일 보성의 시장에 있던 오리 분변에서도 저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AI 집중관리대상농가 1천300호에 대한 일제 예찰 및 해당지역에 대한 소독과 인근 농장에 대한 감염여부 확인검사를 실시해 사전 위험성을 신속히 제거하고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AI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닭·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혈액 및 분변검사 7천935건,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 440건, 도내 16개 재래시장에 대한 예찰활동 등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6건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저병원성 AI는 한번 발생했던 곳에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생건수가 늘어난 것은 관리지역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한 영향도 있다”며 폭설과 한파로 겨울철새들의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철새 등 야생조류와 사육중인 가금류의 접촉을 차단하고 발병이 의심스러운 닭, 오리를 발견하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전남 허영표기자, yph0434@naver.com

[최종편집 : 2008년 12월 11일]

## ◎ 철새시즌, AI 방역활동 강화해야...

### 홍콩서 고병원성 AI 발생... 국경방역 강화 “가금사육농가 철저한 소독 예찰 활동” 당부



•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가 온데다 최근 홍콩, 인도네시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업계가 벌써부터 ‘좌불안석’이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지난 4일 철새 도래지인 전남 함평군 소재 대동저수지 예찰 결과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AI(H5N2)가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가 대동저수지 반경 10km 이내 2개 농장의 닭, 오리, 거위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으로 나타났다.

앞선 지난 10월 14일에는 장성군 동화면, 함평군 월야면과 나산면의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5일 함평과 나주의 재래시장, 12일에는 보성의 시장에 있던 오리 분변에서도 저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남도에 AI 발생건수가 빈번한 것은 저병원성 AI는 한번 발생했던 곳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다 관리지역 등에 대한 예찰활동이 강화됐기 때문

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겨울 철새들의 유입 등으로 AI 발생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어 철새 등 야생조류와 사육 중인 가금류의 접촉을 차단하고 발병이 의심스러운 닭, 오리 등을 발견하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yuys68@nongupin.co.kr

【최종편집 : 2008년 12월 12일】

## ◎ 가금수급안정위원회 해체 운명

### 운영자금 고갈로 내년 사업 이후 불투명

가금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이정현 농협중앙회 상무)는 지난 3일 농협중앙회에서 가금수급안정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13억원 규모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2007년 농림부의 시드머니 회수에 이어 운영자금 잔액이 소진할 때까지 존치시키기로 했으나 올 4월 AI가 창궐하자 대부분의 사업비를 홍보예산에 투입하면서 기금 고갈로 사실상 위원회의 존치가 어렵게 돼 내년 사업을 마지막으로 해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참석한 수급위 위원들은 가금관련 단체들이 총망라돼 활동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밝히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김영만 담당 사무관은 시드머니 예치를 통한 사업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이상 같은 방법으로는 예산책정이 불가능하다며 축발기금 직접지원이나 각 가금관련단체에서 일정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은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수도권계관공판센터 설치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 가금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구

구데이 행사, 오리데이 행사, 가금산물 소비촉진 TV간접광고 등이다.

▶ 축산경제신문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최종편집 : 2008년 12월 12일】

## ◎ 태국에 이어 홍콩 AI 발생

### 농림수산식품부, 가금농장 방역 강화

태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홍콩의 닭 사육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외신보도에 따라 홍콩을 여행한 여행자들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가금사육 농가들에게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홍콩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여행자들이 가금육 등 불법 휴대품 반입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시도 및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의 방역기관은 닭·오리 사육농가들에게 농장 출입차량 및 인원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 방역기관들은 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2일 ‘관심단계’ 주의보를 내리고, AI상황실 설치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농수산무역신문 이용희 기자, yong@atnews.co.kr

【최종편집 : 2008년 12월 16일】

## ◎ 국제곡물가 내렸는데 사료값은 또 인상?

### 생산자, 원가공개·안정대책 촉구...

개단체 성명 통해 “무관심·잇속행기기에 농가만 사지로” 성토

축산생산자단체들이 국제 곡물과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료 값이 또 인상됨에 따라 배합사료업계에 사료 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책당국에는 사료 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양육, 양봉 등 7개 축산생산자단체들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산생산자단체들은 “12월 중에 배합사료가격을 kg당 40~60원 사료값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며 이미 11월말 경 인상된 가격을 일선 농가에 이미 통첩해 놓은 상황”이라며 “지난 2006년부터 지속된 오르고 있는 사료값에 대해 정책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대책과 사료업체의 ‘잇속 챙기기’가 맞물려 축산농가들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월 현재 국제곡물 가격이 지난 5월 대비 50%이상 폭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환율상승을 빌미로 또다시 사료업체들이 사료값 인상을 단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처사”라며 “진정 사료값 인상이 정당하다면 우선 사료값 원가를 공개하여 농가 앞에 몇몇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축산물 생산비 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생산현장은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젓소 송아지가 단돈 5만 원 이하로 거래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축산생산자단체들은 지금의 상황을 축산업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사료값 인상중단과 사료값

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당국에는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8년 12월 17일】

## ◎AI 사전 조기경보시스템 효과 특독

### 방역활동 이후 함평 등 저병원성 AI 예찰 6곳 신속 차단

• 함평 대동저수지에서 예찰된 저병원성AI(H5N2)를 신속히 조치한 것을 비롯해 본격 방역활동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총 6회에 걸쳐 효율적 사전 차단에 나서 는 등 '사전 조기경보시스템' 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철새 도래지인 함평 대동저수지 예찰 추진 결과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AI(H5N2)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동저수지 반경 10km 이내 2개 농장 닭·오리·거위 등 6만6천여수에 대한 감염 여부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도내 AI 집중관리대상농가 1천300호에 대한 일제 예찰 및 해당지역에 대한 소독과 인근농장에 대한 감염 여부 확인검사를 실시해 사전 위험성을 신속히 제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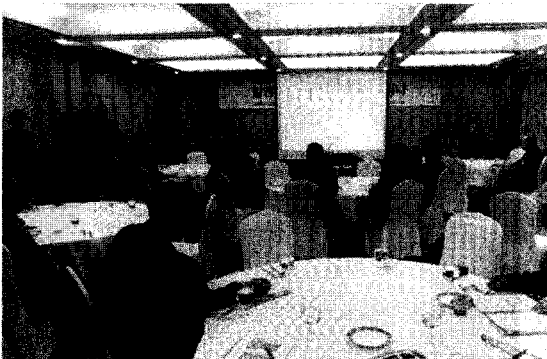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AI 방역활동을 실시, 닭, 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혈액 및 분변검사 7천935건,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 440건, 도내 16개 재래시장에 대한 예찰활동 등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6건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방역조치를 신속히 수행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봄철에도 발생됨에 따라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해 '사전 조기경보시스템' 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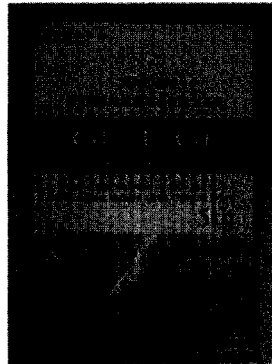
있다"며 "폭설과 한파로 겨울철새들의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철새 등 야생조류와 사육하는 가금류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물망 설치 등을 통한 원천 차단하고 의심되는 닭, 오리를 발견할 경우 방역기관(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또 지난 8일 홍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로 2살 아기가 숨지는 등 대외적으로 AI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새도래지, 재래시장, 도축장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도록 시군 및 관련 기관, 단체에 시달하고 닭, 오리 사육농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으며 동남아시아 및 홍콩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가금육 등 불법 휴대품을 반입하지 말 것,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해서도 농장 출입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현대축산신문 윤홍선 기자 [최종편집 : 2008년 12월 18일]

## ◎알앤엘바이오, AI 감염예방 사료첨가제 출시 18일 '알앤엘 플루캡' 출시기념 세미나 열어...



◆ 동남아지역 곳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국내 가금사육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AI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사료첨가제가 나와서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주)알앤엘바이오(대표 이사 라정찬)는 1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천연성분의 바이러스 억제 사료첨가제인 '알앤엘 플루캡' 출시기념 세미나를 개

최했다. 이번에 출시된 '알앤엘 플루캡'은 천연 성장촉진제인 제주인진속을 비롯하여, 마늘, 가시오가피, 차가버섯, 오리나무 등의 추출물로 만든 것으로, 호흡기 질환에 의한 가축의 폐사 및 생산성 감소를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알앤엘바이오는 밝혔다. 특히 '알앤엘 플루캡'의 주요성분으로 들어가는 차가버섯은 러시아 흑한지역의 자작나무에서 자라는 검은 버섯으로, 면역증강효과가 있는 베타-글루칸의 함량이 상황버섯의 10배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오리나무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디아릴 헤파토노이드계(diaryl heptonoid) 화합물인 신물질 4종을 찾아내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알앤엘 플루캡 출시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축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과 방어능력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라이브뉴스 김수영 기자, al@livesnews.com

[최종편집 : 2008년 12월 18일]

## ◎AI 국경검역·차단방역 만전 당부

농림수산식품부, 동남아 발생 국가 확대따라

• 농림수산식품부는 태국, 홍콩 등에서 조류인플루



# Duck's News

\* January · 2009

26

엔자(AI)가 발생한데 이어 12월16일 중국 동부 장쑤성과 인도 서벵골주의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도 AI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따라 동남아 및 중국·인도지역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요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인 태국·홍콩에 집중했던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품 검색강화 등 국경검역을 중국, 인도 및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확대 실시하고 이들 국가 여행자들이 닭고기 등 육류를 불법 휴대 반입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은 각 시·도의 가축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닭·오리 사육농가들에게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협조와 함께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당부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최근 고병원성 AI는 베트남(11월 30일), 태국(11월 10일), 라오스(11월 8일), 인도 아삼주(11월 21일), 방글라데시(12월 2일), 홍콩(12월 9일), 중국 장쑤성(12월 16일)에서 발생함으로써 발생 국가 및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 축산경제신문 이준영 전문기자, jun@chukkyu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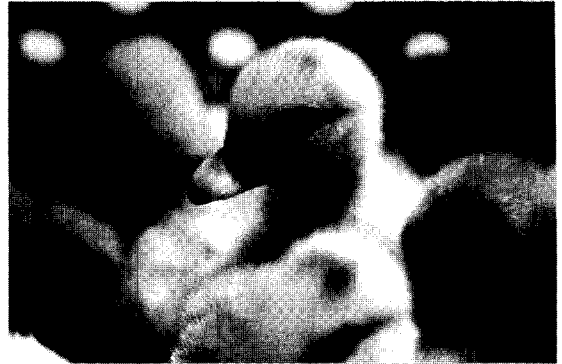
【최종편집 : 2008년 12월 19일】

## ◎ HPAI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소비 급격히 위축

### ■ 2008년 결산/ 오리

유통가격 상승 불구 생산비 폭등으로 수익성 악화, AI 발생 후 수매·재고물량, 생산량 30% 달하  
종오리 DB사업·군납 품목 포함 등 성과도

• 오리업계는 올해 'HPAI', '경기침체', '사료값 폭등' 등 삼재가 겹쳐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



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고공행진을 벌여오던 오리업계는 지난 4월 HPAI 발생으로 인해 첫번째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오리농가는 물론 종오리, 부화장 등이 시설 현대화에 투자했으며 타 축종에서 오리업으로 진출하면서 신생업체들도 크게 늘어나 종오리 사육수수가 30% 정도 증가하는 등 사육기반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4월에 발생한 HPAI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외식 위주의 소비문화인 오리고기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같은 불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HPAI 발생 이후 정부수매 및 계열업체들이 보관 중인 재고량이 1년 전제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1천 500만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배합사료 가격 폭등은 오리업계를 더욱 힘들게 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오리 유통가격은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사료 값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요인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수익성은 크게 악화시켰다. 더욱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오리유통업계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텀핑 판매가 성행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오리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오리업계는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계기를 마련되기도 했다. 우선 오리고기가 올해 처음으로 군납 품목에 포함된 것을 비롯해 종오리데이터베이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시작된 오리자조금이 HPAI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돼 자조금 조성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 밖에도 오리업계의 숙원이었던 '오리표준축사설계도'가 나왔으며 오리털이 수출지원품목으로 선정돼 물류비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 축산신문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8년 12월 20일]

## ◎ '축산자조금법 개정 된다' 축산자조금 제도 개선 토론회

생산자 중심... 대의원 권한 강화 '주축'  
국내 소비홍보에 자조금 목적되어야 '주장'

축산자조금은 생산자인 축산업자 중심으로 국내 소비홍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자조금대의원 권한 강화, 자율성 확대 등 주장했다. 정부는 현안들을 수렴해서 자조금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이 주최하고 축산신문이 주관한 축산자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한국마사회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정찬진 교수가 '미국 농업 자조금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찬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해외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증대 등 압박이 자조금 탄생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조금은 지난 10년간 정부 보조금이 33% 감소한데다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압박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돼 국내시장보호 및 활성화에 대한 자

조급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의자조금 27개 품목(양계, 오리, 양육 및 기타 과일 및 채소), 의무자조금 3개 품목(양돈, 한우, 낙농)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자조금사업 목적은 미국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요증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요증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산자 교육 등이다"고 말했다.

이은 토론에서 석희진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팀장은 "자조금은 현안문제점에서 합의를 도출해 개정안을 만들고 여론수렴도 할 예정이다"면서 "연말까지 개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무임승차가 없어야 한다. 자조금 납부 대상을 생산, 유통, 가공업자로 할 것인지 결정은 물론 참여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는 "자조금 운영은 투명하게 하고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축산업 자조금사업은 소비확대인데 국내시장만 무작정 늘릴 수 없으니 수출시장도 확대토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수출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조금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이 생산농가여서 그런지 소비자보다 생산자 시각에서만 보는 것 같으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관리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환 한국양돈협회장은 "자조금 대의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자조금대의원의 임원, 감사, 의장, 관리위원장 등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농협 등이 추천해 찬반 의견만 묻고 해서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참여를 자제하고 자조금이 잘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김 회장은 "축산단체와 자조금위원회 하고 분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윤상의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자조금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경우 관리위원회에서도 영수증을 발급

해야 한다”면서 거출금징수 상계처리문제, 영수증 발급문제 개선 등을 지적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현재의 자조금은 생산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자조금 총회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조금은 사료업계, 가공업계,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남 회장은 “특히 농협은 중앙회가 하고 있는데, 지역조합에서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축단협 회장)은 “대의원 선출 경우 경선이 됐을 때는 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바쁜 시기에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은 시간, 인력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자조금은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그는 “자조금은 생산농가가 부담하면서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지만 사사건건 개입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 50%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에 써라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조금 사무국 운영비가 5%로 묶여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장은 “축산자조금에 있어서 낙농, 양계, 산란계 자조금 사무국 운용비는 5%로는 안 되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자조금 관리내에 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덕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자조금은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통구조개선에 자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벼찬 일이다”는 그는 “축산물소비홍보에 쓰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중수 충남대 교수는 “축산단체의 자조금이 아니라 축산업자의 자조금으로 해야 한다”면서 “자조금의 조성 과 운영을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게 모순이다”고 지

적했다.

박 교수는 또 “우리나라에서 자조금은 입출이 자유롭고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소비확대가 수출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소비가 늘면 가공업자도 이익이고 도축업자도 이익이니 적극 자조금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로어에서 도축장협회 회장은 “제도정비(制度整備)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농협, 한우협회 등은 힘 겨루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업농신문 김주영 기자 juyoung123@empal.com

[최종편집 : 2008년 12월 22일]

## ◎종오리업도 축산업 등록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업 시행령’ 개정 공포

●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고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축산업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 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 대상 규모를 현행 3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업 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용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번에 ‘종오리업’이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된 것은 오리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

향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에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종오리업’을 축산업등록 대상으로 신설

▶ ‘종오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6월 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서, ‘종오리업’의 등록으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 ②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 변경

▶ 현재 축산업등록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300㎡ 초과’에서 ‘사육시설면적 50㎡ 초과’로 변경하되, 공포한 날로부터 6월 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서, AI 상시 방역 체계 운영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 ③ 축산발전기금의 용자취급기관 확대

▶ 농업인들의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용자취급기관을 농협·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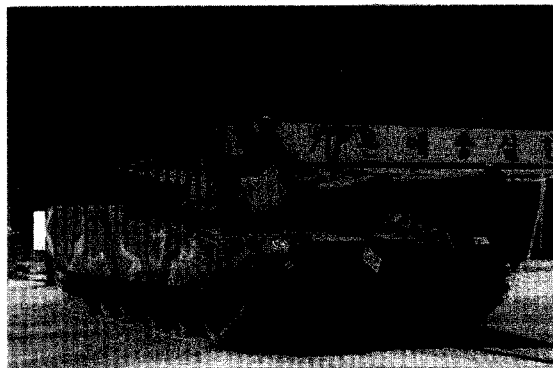
#### ④ ‘가축개량기관지정의 시설기준’을 완화

▶ 현재 가축개량기관 지정의 시설·장비기준은 ‘30㎡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하나, ‘24㎡’ 이상의 사무실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해소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라이브뉴스 도나희 기자, a1@livesnews.com

[최종편집 : 2008년 12월 24일]

## ◎ 내년 수입쇠고기 급식 재개될 듯 미국산은 어려울 듯... 국내산 비중 높여



• 올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군(軍)내 급식이 일시 중단됐던 수입 쇠고기가 내년부터 다시 제공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부터 중단됐던 수입 쇠고기 공급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은 오늘 장관에게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까지 장병당 하루 평균 한우 10g, 육우 5g 등 국내산 15g과 수입산 20g 등 모두 35g의 쇠고기를 제공해왔으나, 쇠고기 파동 이후 수입 쇠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공급해왔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하루 평균 한우 11g, 육우 8g 등 국내산 쇠고기를 17g으로 조금 늘리고 수입 쇠고기는 16g으로 다소 줄여 공급할 예정이다. 또 한우의 경우 현재 1등급 10%, 2등급 50%, 3등급 40%인 급식비율을 1등급과 3등급을 각각 20%와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쇠고기 공급 예산이 93억원 증가함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국내산 쇠고기 비중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수입 쇠고기 공급 재개는 국내산 쇠고기 15g만으로는 메뉴 편성이 어려운데다 국내산으로만 공급할 경우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희 국방장관도 “아전에서 메뉴 편성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니 방안

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입 쇠고기 공급 중단 직전까지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급식됐고 최근 실시한 장병 선호도 조사에서 대다수 장병이 미국산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장병 식탁에 오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병사들의 정서상 미국산 채택 가능성은 작다"며 "하지만 WTO(국제무역기구)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미국산 제외를 공식화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수입 쇠고기 대체품목으로 월 135g씩 공급했던 오리고기를 내년부터는 정식 식단으로 분류, 월 150g씩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oneybee@yna.co.kr

[최종편집 : 2008년 12월 26일]

## ◎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

휴일 반납하고 구슬땀 흘리는 오창과학산업단지



•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성탄절 휴일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열의와 긴장감으로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그 열기가 뜨거웠다. 12월 25일 오후 1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시원식품(주) 작업장에서 오리 훈제 포장을 하던 황영숙(53·청원군 오창면) 씨는 일손

을 잠시 멈추고 허리를 곧추 세웠다. 황영숙 씨는 "내 나이 50이 넘어 크리스마스에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직원들끼리 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연말까지 물량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최근 송년회 등으로 주문량이 평소보다 20% 가량 늘어난 오리훈제제품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인데도 40여 명의 전 직원이 출근해 각자의 역할에 여념이 없었다. 채수창(49) 시원식품 대표는 "직원들이 하나같이 내 일처럼 여기며 일을 해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어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연말 특별보너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불황 속에서도 휴일을 반납할 정도로 바쁜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불량이 있을 때는 100% 전량 회수 또는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골 거래처들의 신뢰가 낳은 결과다. 전자부품 등의 표면처리업체인 (주)이벡트론도 사업장 2층 도금 생산팀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생산직 근로자 3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날 근로자들은 청주산업단지 내 심택 등에서 납품받은 PCB(인쇄 회로 기판) 제품의 도금작업을 하고 있었다. 또 한 쪽에서는 제품의 신속한 공정을 위해 직원 3~4명이 새로운 생산라인(B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허성기(39) 이벡트론 생산A조 파트장은 "하루 2,000~5,000개의 제품생산을 위해서 3조 2교대로 365일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힘을 합해 노력하다보면 반드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박한진 기자, adh79@cctoday.co.kr

[최종편집 : 2008년 12월 26일]